

# “따뜻한 나눔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

## 김상군 신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 전·현직 직원 중 최초로 중앙회 사무총장 선임 기부문화 조성...취약계층 희망·용기 전하고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 제8대 사무총장으로 김상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다음달 5일부터 3년이다.

전·현직을 통틀어 직원 출신이 중앙회 사무총장으로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21일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며 한편으로는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도민들을 비롯해 기업인, 아너 소사이어티 분을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김영록(명예회장) 도지사님, 노동일 전남사랑의열매 회장님, 한상원 광주사랑의열매 회장님, 박흥석 전 전

남사랑의열매 회장님과 함께 열심히 일한 직원들 덕분에”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부는 빈부격차나 지역감정, 정치나 종교 이념 등을 초월해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이뤄가는 것이 목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일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공동모금회가 마땅히 할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1989년 한국투자증권에 입사한 후 유진투자증권 차장, 메리츠증권 광주지점장을 거쳐 금융기관에서 2006년 5월까지 17년 동안 금융인으로서 근무했으며, 2006년부터 전남 전북 중남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으로 일해왔다.

김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있을 때부터 항상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인가’라는 생각을 해오면서 ‘다수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성공한 삶’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회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을 돕고 이들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회했다.

김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서 17개 시도 지회와 중앙회의 모금 및 배분사업을 비롯해 사무처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상공인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마스크나 손소독제 공급 등 방역활동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기부문화를 통해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김 사무총장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거쳐 조선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최명진기자

## 광주YWCA 신임 회장에 김선옥씨



광주YWCA 신임 회장에 김선옥씨가 선출됐다.

광주YWCA는 21일 제92회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회장으로 김씨를 선출하고 헌신에 배를 통해 신·구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광주YWCA 제31대 신임 회장에 선출된 김 회장은 1995년 광주YWCA 청소년 위원 활동을 시작해 사회문제부, 성인부, 청년대학생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위원을 역임했다.

또 광주YWCA 어린이집과 건물관리 및 사업부, 기획 및 지도력양성부 위원장을 거쳐 광주YWCA 부회장을 지냈다.

신임 김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고 겸손히 수행하겠다”면서 “광주YWCA가 펼치고 있는 생명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명진기자



## 임택 동구청장,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최근 관내 돈가스제조회사인 ‘히노아스카(대표 홍승표)’ 본사와 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임 구정장은 홍승표 대표 및 회사 관계자들로 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지역기업으로서 판로 확보의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 생산시설을 함께 둘러봤다.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히노아스카(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HACCP(중점관리 우수식품) 지정을 받고 ‘진심 돈가스’, ‘돈페’, ‘아마이살문’, ‘더프리’, ‘사돈의 팔촌집’ 등 브랜드를 론칭해 온라인 판매, 유통업체납품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임 구정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시간을 자주 가질 것”이라며 “구청차원의 관료개혁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동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 장석용 전남교육감, 교육자치협력 우수지구 장관상 전달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이 ‘미래형교육자치협력 우수지구’에 선정된 순천시와 구례군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전달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9일 순천시청과 구례군청을 방문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전달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2개 모든 시·군을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개 지구가 2020년 교육부 공모 사업인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로 지정됐으며, 순천시와 구례군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장 교육감은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으로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되돌아오고 정주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면서 “전남의 최대 위기인 지역소멸을 낚을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과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 씨엔에스트레이딩컴퍼니, 조선대병원 방역물품 기증

조선대학교 안과광학의료기기가료회발족지원사업단(이하 안광학사업단)의 참여 기업 ‘씨엔에스트레이딩컴퍼니’가 최근 조선대병원에 의료용 고글 550개 및 레벨D 보호복 키트 100개, 생활방역 3중 키트 150개를 기증했다.

씨엔에스트레이딩컴퍼니는 2020년에 설립돼 일회용 고글과 같은 의약외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안광학사업단의 핵심 참여 기업으로 초경량 다용도 고글이 미국 식약청에 의약품 의류준외기로 등록, 세계 최초로 핀홀 콘택트 렌즈

특허를 취득하는 등 안과광학 의료기기 분야의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권만성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에서 묵묵히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중훈 조선대병원장은 “힘든 시기에 방역물품을 기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더욱 힘을 내서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오승지기자

## 허궁희 완도군의회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허궁희 완도군의회의장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큰 변화를 염원하고 지방정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릴레이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챌린지 참여는 자치분권 시대에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실린 사진을 SNS에 게재 후 다음 챌린지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궁희 의장은 조용성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



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허궁희 의장은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는 시대 흐름”이라며 “완도군의의회가 주민이 변화의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8천만원 기탁

에너지연구원으로부터 도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8천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과 허용호 녹색에너지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원이 기탁한 장학금은 전남도와 경기도가 체결한 ‘지역상생 협약’에 따라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지역상생 태양광발전소’는 2016년 5월 전남도와 경기도의 협약 체결로 건립이 시작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원 경기도로부터 60억원을 지원받아 총 3천kW의 태양광발전소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내 가평, 양평, 동두천, 광주에 건립했다.

발전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경기도 소재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발전기금과 전남도내 원



전 지역 주변 학생들의 장학금 등으로 쓰인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18년부터 발전소 수익금의 일부를 전남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제공해 왔으며 이번 장학금을 포함해 그동안 1억5천500만 원을 기탁했다.

당초 계획한 태양광발전소 3천kW가 모두 완공됨에 따라 앞으로 17년간 매년 6천만원 씩 11억 원 상당의 장학금이 추가 기탁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 그룹홈 목포우리집,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목포 원산동 그룹홈 목포우리집이 최근 온라인 기부포털 해피빈의 글로컬 다문화 복지협회의 연계·후원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저소득 가정 40가구에 전달했다.

목포우리집은 관내 공동 생활가정으로 지역사회 위기 가정 상담·지원, 서비스연계 등 저소득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정숙 그룹홈 목포우리집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소득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계속 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원산동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자



존감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모두가 행복한 원산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김해곤 법사랑위원 광주연합회 위원, 법무부장관상 수상

김해곤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위원(사진 가운데)이 최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위원은 송고한 인간애와 헌신적 봉사정신으로 비형성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에 전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김 위원은 지난 1972년 담양군 대전면농촌지도자 회장을 시작으로 많은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현재 바르게살기 담양군협의회 부회장과 (생태도시)담양군협의회 고문 등을 맡아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담양군새마을협의회회장과 지역발전위원회, 담양환경보전협의회회장, 담양농촌지도자회 회장, 영산강환경정명명예활동 감시원 협의회장, 검찰청 담양군 범죄예방위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위원, 담양군 새마을지도자 방법봉사대장, 대전면 자율방범 협의회장, 학교폭력근절 협의



위원 등을 역임하며 사회봉사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김 위원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이며 기동인데, 이러한 아이들이 잠시 다른 길에 들어섰다고 어른들이 외면하면 아이들의 설 자리가 사라진다”면서 “앞으로도 주변 환경 때문에 잠시 다른 길로 돌아가는 청소년들을 감싸 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흥석)는 지난 18일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 우영인)로부터 2021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 전위원장과 신임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영인 위원장,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십사일반 성금 모금에 동참해 2천500만원의 적십자 특별회비를 마련했다. /최명진기자



봉사특별자문위원회 일례회의